

환경공단, 굴뚝원격감시체계로 영국 그린애플 어워즈 수상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사업장 굴뚝 대기오염관리시스템인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로 '2013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의 '국제 그린애플 환경 어워즈(International Green Apple Environment Awards)'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그린애플 어워즈'는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 비영리단체 'The Green Organisation'이 매년 세계 산업 전 분야의 친환경 우수사례 중 환경적 성과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시상하는 것이다.

1994년 영국에서 시작됐으며 유럽연합(EU) 커미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럽 최고의 친환경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12일(한국시각) 영국 하원의사당에서 개최됐다.

환경공단은 전국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는 정부의 환경관리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자율 관리체계로,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예방체계로 전환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아울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는 등 지역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통한 데이터는 환경오염예방 및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 과학 환경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수상 후 기념 촬영

특히, 환경공단의 이번 수상은 2013년 '석면피해구제 제도'로 미국 'EBI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한데 이어 '그린애플 어워즈'에서도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올린 것으로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2년 '그린애플 어워즈'에서도 폐기물 모니터링체계 구축(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인 공로로 '국제 그린애플 환경 어워즈'를 수상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유럽 최고의 '그린애플 어워즈'를 2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에서 기술의 우수성,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며 "환경공단은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환경기업과 함께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 Clean[청정] + System의 조어로 기존 굴뚝TMS로 불리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2006년도에 혁신브랜드로 새롭게 창출한 대한민국 환경 대표브랜드로 사업장 굴뚝에서의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